

kiri Weekly

2011.11.7 제155호

이슈

지급능력평가의 자본 계층화 논의와 시행 과제

포커스

보험회사의 자기자본규제와 경기순응성

금융보험 해설

자본시장제도 이해(4): 질서 있는 국가부도(Orderly Default)

국내금융 뉴스

2011년 10월 무역수지 흑자 지속
9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현황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9%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미 연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_ 미국 3/4분기 실질GDP 2.5% 증가
유럽 _ 유럽경제, 총체적 난국
_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안 국민투표 표결 결정
일본 _ 일본 후생성,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 인상 계획
중국 _ 중국, 유럽 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지급능력평가의 자본 계층화 논의와 시행 과제

김해식 연구위원 / 조재린 연구위원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감독기구들은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늘리고 손실흡수 정도가 높은 자본 위주로 자본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감독기준을 제시함.
 - 자본구성 강화 논의는 손실 발생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손실 보전에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을 구분하여 상시 사용가능한 자본을 확충하려는 데에서 출발함.
- EU S2는 자본의 손실보전 능력을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자본의 구성비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EU S2는 자본의 후순위성, 가용성, 충분한 듀레이션(영구성), 상환요건 유무, 고정이자지급 유무, 사용처 제한 유무 등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자본의 질을 결정
 - 보험회사는 “기본자본(Tier 1) > 보완자본(Tier 2) > 보완자본(Tier 3)”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요구자본(SCR) 대비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구성비 요건도 충족해야 함.
- 반면, 국내 RBC 제도의 지급능력평가는 가용자본 대상을 항목별로 평가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일단 합산항목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자본항목들의 손실보전 정도는 모두 동일하다고 간주함.
 - 현행 가용자본 규제로는 감독당국이 위기 시 보험회사별 자본의 손실보전 능력을 관찰하기 쉽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틀로서도 유연성이 부족함.
- 이런 맥락에서 금번 금융위원회의 자본계층화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향후 가용자본 규제 개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구분 시 필요한 손실보전 능력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명시
 - 가용자본의 범위 조정은 요구자본의 내용과 견주어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기본자본 비율의 한도 설정은 보험회사 실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정
 - 향후 은행 및 보험의 권역 간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가용자본 규제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

1. 검토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 감독기구들은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늘리고 손실흡수 정도가 높은 자본 위주로 자본 구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감독기준들을 제시함.¹⁾
 - 국제금융 감독기준들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공통된 특징은 금융회사의 노출된 위험 총량인 요구자본(required capital) 산출 시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은 다양한 위험을 반영하게 하는 등 양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요구자본에 대응하여 금융회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 즉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에 대해서도 손실흡수 정도에 따라 보유자본을 구분한 후 보통주자본 등 기본자본의 보유 비중이 높아지도록 하는 등의 질적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보험감독규정을 국제보험감독원칙(ICP)과 일관성을 갖도록 정비하는 계획이 제시된 바 있으며,²⁾ 그 계획에 자본의 손실흡수 능력에 따라 가용자본의 인정 범위를 달리하는(이하 “자본의 계층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ICP는 요구자본에 대응하는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이 가용성, 영구성 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정도에 따라 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계층화하고 있음.³⁾
 - 이에 금융위원회도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능력평가에서 가용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기로 하고, 현 지급여력비율과 별도로 기본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계획을 제시함.

- 본고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와 EU가 제시하고 있는 보험회사 지급능력평가와 관련된 질적 규제인 “자본 계층화” 논의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1) 김해식·임준환(2011. 10. 10),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서울총회 논의 결과와 의미」, 『Kiri Weekly』 제151호,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1. 10. 20), 「최근 보험감독분야 국제논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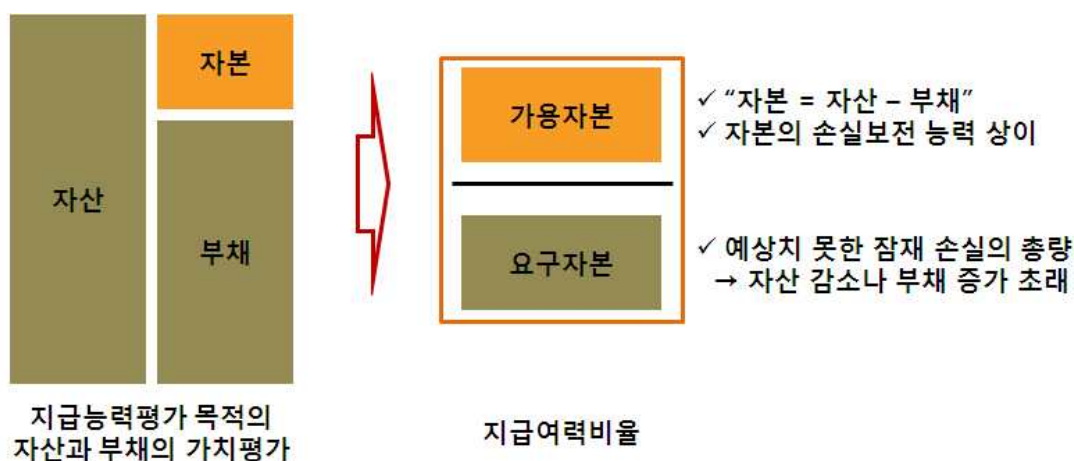
3) 「자본적정성에 관한 국제보험감독원칙서(ICP 17, 자본적정성)」.

2. 해외의 지급능력평가와 가용자본 계층화 논의



-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은 예상치 못한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손실의 총량에 상당할만한 가용자본을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평가
 - 국내에서는 위험기준자본(RBC: Risk-Based Capital) 방식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요구자본에 해당하며,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를 감독규정에 따라 조정하여 계산된 지급여력이 가용자본에 해당
 -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geq 요구자본” 또는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geq 100%”이면 보험회사가 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지급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도 실제 손실 발생 시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없는 자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본의 질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

〈그림 1〉 보험회사의 지급능력평가: 지급여력비율



- 자본 계층화 논의는 손실 발생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을 구분하여 상시 사용 가능한 자본을 늘리려는 데에서 출발함.
 - IAIS는 자본이 보험사업을 지속하는(going-concern basis) 동안의 예상치 못한 손실은 물론 청산 시(liquidation basis) 손실 보전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함(지침 17.2.6).
 - 보험사업 지속에는 신규판매 없이 보유계약만 관리하는(run-off basis) 경우도 포함함.

- IAIS는 각국 보험감독자에게 자본의 손실보전 능력에 관한 기준 정립을 요구(ICP 기준 17.11)
 - 자본의 손실보전 능력 평가 시 자본의 후순위성, 가용성, 영구성, 사용처 제한이나 의무배당 여부 등을 평가척도로서 제시함(ICP 지침 17.11.7).
 - EU Solvency 2(이하 EU S2)는 IAIS가 제시한 자본 구성의 구체적인 규제 틀을 보여줌.
- EU S2는 재무상태표 항목은 물론 신용장 등의 부외항목도 가용자본 범주에 포함하고 자본의 손실보전 능력을 6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함.
- EU S2는 자본의 후순위성, 가용성, 충분한 듀레이션(영구성), 상환요건 유무, 고정이자지급 유무, 사용처 제한 유무의 6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자본의 질을 결정
 - 자본의 질은 청산 시에만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low quality), 사업의 유지에 기여하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medium quality),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 언제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high quality) 등 상, 중, 하로 분류함.
 - 부외항목의 경우 자본의 질이 우수하더라도 보완자본으로만 인정되며, 특별계정 등 특정 위험에 할당된 자본(ring-fenced funds)도 보완자본으로 분류함.

〈표 1〉 EU Solvency 2와 Basel 3의 가용자본 구성

자본의 질	EU S2		Basel 3
	재무상태표 항목(Basic)	부외항목(Ancillary)	
상(high)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보통주자본(CET),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중(medium)	보완자본(Tier 2)	보완자본(Tier 3)	
하(low)	보완자본(Tier 3)	-	

- BIS 3 역시 자본의 질 결정 시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외항목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자본 중에서도 보통주를 따로 구분하여(CET: Common Equity Tier) 보통주자본의 구성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EU S2와 차이가 있음.
- EU S2에서는 보험회사가 요구자본을 초과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본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능력 부족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점에서 현행 평가와 다름.
- 보험회사는 “기본자본 > 보완자본(Tier 2) > 보완자본(Tier 3)” 요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SCR 대비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Tier 2, 3)의 구성비 요건도 충족해야 함.

- 기본자본 구성비는 요구자본(SCR: Solvency Capital Requirement) 대비 50% 이상인 반면, 보완자본 중 Tier 3의 구성비는 요구자본(SCR) 대비 15% 미만이어야 함.

〈그림 2〉 EU S2: 요구자본 대응 가용자본의 구성 요건



- 한편, EU S2에서는 무형자산, 보유계약의 기대이익(VIF: Value-In-Force)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어 국내 RBC의 향후 개편에서도 이들 항목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무형자산과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한다는 전제에서 그 가치의 변동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대신 무형자산이나 보유계약의 기대이익을 가용자본으로 보자는 논의임.
 - 논의 결과, 무형자산은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나,⁴⁾ 보유계약의 기대이익(VIF)은 준비금 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가용자본 인정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3. 우리나라 가용자본 규제의 현황과 과제

- 국내 RBC 제도의 지급능력평가는 가용자본 대상을 항목별로 평가하여 합산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일단 합산항목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자본항목들의 손실보전 정도는 모두 동일하다고 간주함.
 - 현행 규제는 가용자본 인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며, 부외항목도 포함하지 않음.

4) 장동식(2010), 「유럽 Solvency II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제5차 계량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 감독규정(제7-1조)에서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 영구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 명시적인 인정 기준이라 보기 어려움.
- 합산항목 내 자본들은 손실보전 정도에 차이가 없다고 간주하나, 후순위채무나 신종자본증권 등 특정항목에 대해서는 합산 한도를 설정하여 손실보전 정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함.
 - 우선주 등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15% 초과분은 후순위채무액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50% 한도에서 인정함.
 - 후순위채무, 상환우선주 등에 대해서는 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20%씩 상각하여 가용자본으로 인정함.

〈표 2〉 국내 가용자본 산출: 합산 및 차감 항목

(자산 항목)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 항목)
금융회사 지분(-) 자회사 지분: 자본과부족(±) 대손충당금(+) 선급비용(-) 미상각신계약비(-)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차(-)	보험료적립금 초과적립(+)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유가증권평가익(+) 지분법자본변동(+) 후순위채무(+) 신종자본증권(+)
	자본금(+) 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주: 합산항목은 “+”, 차감항목은 “-”, 가감항목은 “±”로 표시함.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 **검입화 등 향후 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의 규제완화 압력은 커질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건전성 규제의 정비 필요성도 높음.**

- 그동안 국내 지급능력평가는 다양한 위험을 반영하여 요구자본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둔 반면, 가용자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 그러나 현행 가용자본 규제로는 감독당국이 위기 시 보험회사별 자본의 대응능력을 관찰하기 쉽지 않은 데다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틀로서도 유연성이 부족함.
 - 감독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자본항목에 대한 인정 여부가 불분명하고, 일단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항목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변경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음.

-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자본에서 부채로 계정이 변경된 상환우선주의 가용자본 인정 여부 논란은 현행 가용자본 규제가 가진 취약점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임.
 - 또한, 현행 가용자본 규제는 보험회사의 평상 시 손실보전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본 구성 강화를 유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금융위원회의 “자본 계층화” 추진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되나, IAS의 국제보험감독기준과 EU S2의 사례를 살펴볼 때 향후 가용자본 규제 개선작업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먼저, 가용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구분 시 필요한 손실보전 능력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명시함.
 - 둘째, 가용자본의 범위 조정은 요구자본의 내용과 견주어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무형자산이나 보유계약의 기대이익의 반영도 이런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셋째, 기본자본 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자본 비율의 한도 설정은 보험회사들의 실태나 시물레이션 등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임.
 - 국내 보험회사의 현행 자본 구성으로 볼 때 EU S2의 기본자본 비율 50% 룰이 보험회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는 적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본자본 비율이 적용되면 그동안 후순위채 위주로 자본을 보강해 왔던 보험회사의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마지막으로, 은행 및 보험의 권역 간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BIS 3와 EU S2의 상이한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kiri**

금융시장 주요지표



김세중 선임연구원

▣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국내 지표		2010년 말	2011. 10. 27(목)	2011. 11. 3(목)	전주대비
금리	CD금리(91일)	2.80	3.57	3.57	0.00
	국고채(3년)	3.38	3.53	3.43	-0.10
	회사채(3년, AA-)	4.27	4.36	4.27	-0.09
환율	원/달러	1,138.90	1,124.50	1,131.50	7.00
	원/엔(100엔)	1,403.10	1,480.77	1,449.53	-31.24
	원/유로	1,519.24	1,594.26	1,563.51	-30.75
	원/위안	172.81	176.82	178.15	1.33
주가	KOSPI	2,051.00	1,922.04	1,869.96	-2.7%
	KOSDAQ	510.69	497.04	487.91	-1.8%
	KOSPI 보험지수	17,225.34	15,884.78	16,312.14	2.7%

* KOSPI 보험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100p로 하는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 KOSPI에 상장되어 있는 13개(손해보험 10사, 생명보험 3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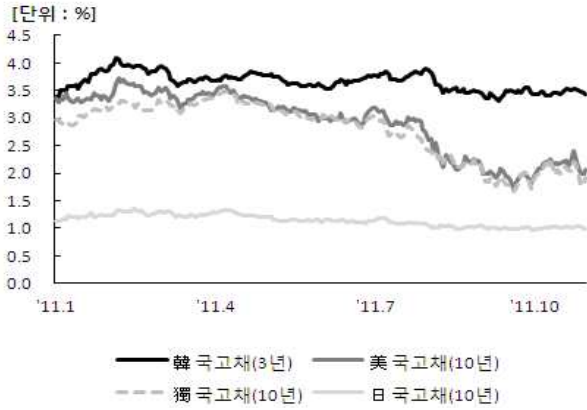
■ 해외 주요 경제지표

해외 지표		2010년 말	2011. 10. 27(목)	2011. 11. 3(목)	전주대비
금리	LIBOR(3개월, \$)	0.30	0.43	0.44	0.01
	미국 국고채(10년)	3.29	2.40	2.07	-0.32
	독일 국고채(10년)	2.96	2.21	1.91	-0.29
	일본 국고채(10년)	1.13	1.01	1.00	-0.01
환율	엔/달러	81.17	75.94	78.06	2.12
	달러/유로	1.3339	1.4177	1.3818	-0.0359
	위안/달러	6.5906	6.3595	6.3514	-0.0081
주가	미국 DowJones	11,577.51	12,208.55	12,044.47	-1.3%
	미국 Nasdaq	2,652.87	2,738.63	2,697.97	-1.5%
	영국 FTSE100	5,899.94	5,713.82	5,545.64	-2.9%
	독일 DAX30	6,989.74	6,337.84	6,133.18	-3.2%
	프랑스 CAC40	3,804.78	3,368.62	3,195.47	-5.1%
	일본 Nikkei225	10,228.92	8,926.54	8,747.28	-2.0%
	중국 상해종합	2,808.08	2,435.62	2,508.09	3.0%
	대만 가권	8,972.50	7,565.21	7,460.31	-1.4%
	홍콩 항셱	23,035.45	19,688.70	19,242.50	-2.3%
	DowJones 보험지수	170.94	164.49	153.91	-6.4%
실물지표	두바이유	88.54	107.07	105.63	-1.3%
	금(NYMEX)	1,420.78	1,744.85	1,763.82	1.1%

* DowJones 보험지수(DJTINN) 1991년 12월 31일을 100p로 하는 유통주식수 조정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며,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글로벌 보험사 중 상위 30개사를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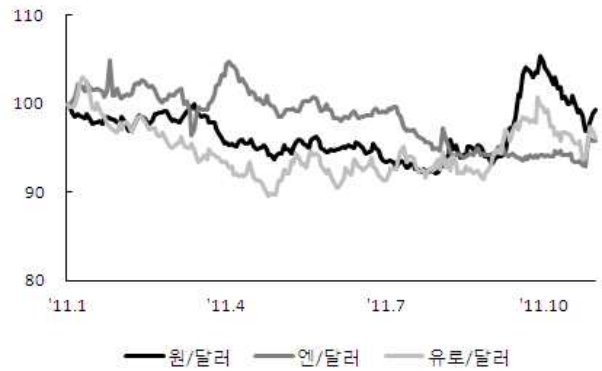
■ 주요지표 비교차트

〈그림 1〉 주요국 이자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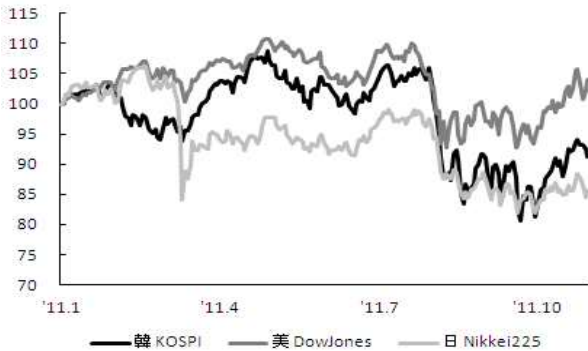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2〉 주요국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주: 2010년 12월 말 환율을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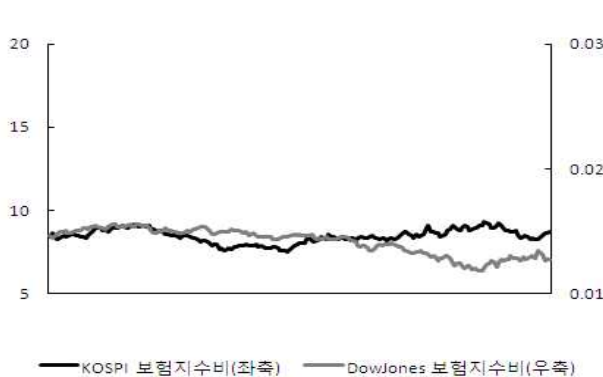
주: 2010년 12월 말 주가지수를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4〉 한국·미국 보험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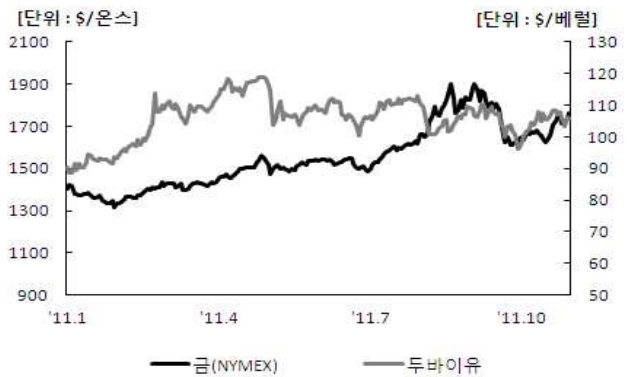
주: 2010년 12월 말 주가지수를 100으로 계산한 지수임.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5〉 한국·미국 보험지수비 추이



주: 보험지수비=보험지수/전체지수로 계산함.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그림 6〉 국제유가·금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